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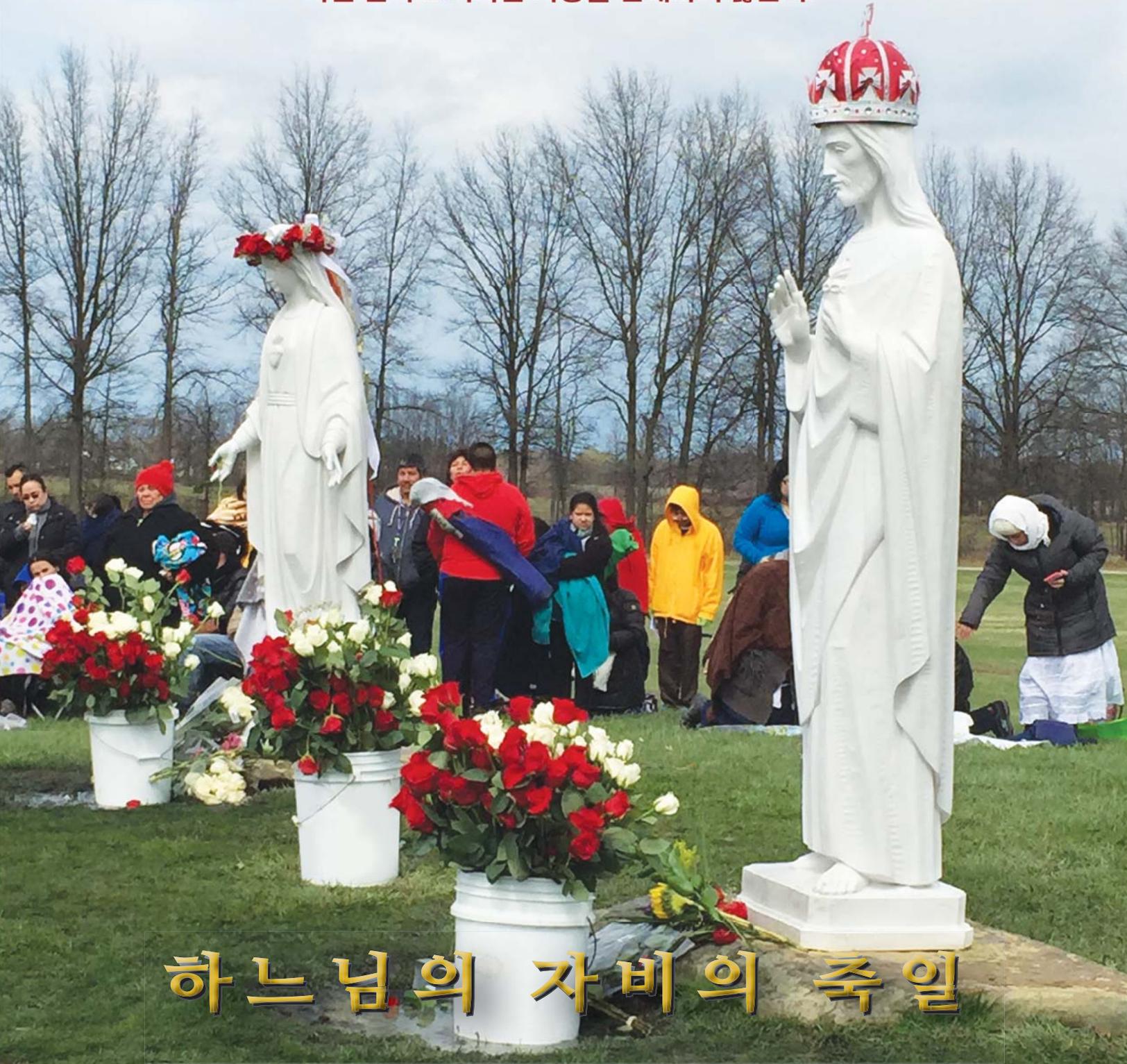
거룩한 사랑

잡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의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자비의 축일

거룩한 사랑 잡지는 년 3 회에 걸쳐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여정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출판됩니다. 이번 호에 포함한 주제: 워싱턴 디시에서의 생명을 위한 연례 시위 행진 (1월 22일); 새로 설립한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 소개 (2월 10-18일); 하느님의 자비 축일 (4월 2-3일)을 위한 이틀 동안의 특별 행사; 그 외 여러 가지.

거룩한 사랑 잡지

2016년 1월 ■ 2월 ■ 3월 ■ 4월

제3권 제 1호

목 차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2쪽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	3쪽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	4쪽
2016년 생명을 위한 시위 행진	6쪽
거룩한 사랑의 증언 - 마라나타 샘의 성수에 의한 치료	9쪽
영적 여정 - 제17편: 다섯째 심방	10쪽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com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 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 (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 회원들

2016년 2월 10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이 메시지들의 진리를 널리 펼치는 것에 전념하는 평신도들의 집단을 세상에 설립하도록 내게 요청하셨다. 그들은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 라고 불릴 것이다. 그들의 눈에 띄는 유일한 보임새는 하나 되신 성심의 상본이 그려진 방패 모양, 즉 성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와 같은 모양의 배지다. 그들은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한 보속의 성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기도와 희생에 전념해야 한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사제들을 도와야 한다.” ■

2016년 2월 1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하나 된 성심의 형제회는 또다시 말하지만 미혼이나 기혼인 남자 평신도로 구성되며, 이 선교사업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을 지닌 기도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복음 전파의 방식에 대해서도 의논해야 한다. 일년에 한 번 그들은 모두 이곳 성지에 모여 새로운 인쇄물을 얻어가고 복음 전파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 ■

2016년 2월 18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 되신 성심의 형제회의 복음 전도 노력의 주요 초점은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문)을 전파해야 한다.” ■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인자하시고 하나 되신 성심과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세상의 마음을 대신하여 바치는 저의 이 기도를 받아주소서. 세상의 마음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각 영혼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도록 격려해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마음이 이 봉헌의 결심을 더 강하게 하소서.”

“사랑하올 하나 되신 성심이시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감의 은총을 세상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어 세상의 마음을 진리와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강화시켜 주소서. 이 천상의 영감으로, 세상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2년 5월 10일)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 회원들은 개인의 입장과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다음 사항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다:

- 거룩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의 배지를 착용한다.
- 하나 되신 성심의 성심회 회원 안내서에 설명된 대로 하나 되신 성심의 영성에 헌신한다.
- 기도와 희생:
 -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는 매일 기도
 -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한 보속의 성시간을 가짐.
 -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선교사업을 위한 기도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기도모임 그룹의 형성.
 - 이 메시지의 진리를 널리 펼친다. 즉,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의 봉헌 기도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파한다.
 - 구조 센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 가능한 한 사제들을 돕는다.
 -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일년에 한 번 모인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처: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USA

전화: 440-327-8006 내선222

이-메일: LayBrothersofUH@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짐.)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심의 성화에서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다.”

“나는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인류를 그들에 대한 나의 통치권의 현실에 주의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인류가 질병을 극복하고 자연 재난과 싸우는 것을 도와 주었으며 그리고 여러 번 중재하기 위해 내 어머니를 보냈다. 그러나 인간은 오만 때문에 활동하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다. 인간은 나의 선물인 태내 생명을 거절하면서, 내가 영감을 준 (과학)기술을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기 마라나타 성지에서의 이 강력한 것과 같은 천국의 개입들을 무시하면서 나에게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 성심을 비통하게 만들고 있는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 때문이다.”

“나는 내 정의(공정)을 전하기가 몹시 싫다. 그러나 인류를 내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내 정의의 손이 떨어져야 한다. 이제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너희도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이유로 너희는 점점 더 큰 시련을 경험할 것이다. 세상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하나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더 깊은 정도까지 계속할 것이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나의 사람들, 나의 남은 신자들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릇 인도된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크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의로움 안에서 이끌 능력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질 것이다. 내 계명들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혼동될 것이다. 의견과 신념 들이 대량 파괴 무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권력자들은 자비를 나쁜 짓을 하는 것의 이유로 이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악과 협력할 경우에 그들이 선행을 하고 있다고 믿도록 잘못 인도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의 분별력을 너희의 갑옷으로서 몸에 걸치고 있어야 한다. 분별력은 의견이나 경솔한 판단이 아니다. 분별력은 진리 즉, 옳고 그름 사이의 차이에 관한 너희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느낌이다. 이 혼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진리의 타협을 통해서 악을 조장할 것이다. 사리사욕을



선교회 종합 빌딩과 주차장



하나 되신 성심의 서점



고통의 성모님 성지



요셉 성인 성지



행렬



- 2016년 4월 3일



조장하는 거짓된 분별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이미 내가 말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너희의 삶은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더 강력해지고 세속적인 물자와 서비스 (services, 용역 用役)를 통제하게 됨에 따라 변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완전한 의존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본적인 필요를 성취하기 위해서 악을 조장하는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함을 알 것이다. 악은 조정과 지배의 수단으로서 인간의 필요성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가 감히 양심의 역할, 곧 선악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떠맡고 있다. 만약 이 나라가 낙태에 찬성하는 또 다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너희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너희는 이 확실한 파멸에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언어로 분명하게 이 경고를 주고 있으니,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너희의 마음을 세상 밖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선악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오직 선(善)만을 기꺼이 선택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 정의는 양값음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비로 열려있는 문으로서 너희에게 온다. 이것은 뉘우침 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무관심과 신성 모독과 악의 수용에 대한 치유의 표시다. 세상의 마음은 이제부터 내 어머니의 성심의 정화의 불꽃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 나는 여기에 참석해 있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자비를 베풀기위해서 왔다.”

“오늘 나는 너희가 여기에 아주 많이 와 주어서 참으로 기쁘다. 나는 너희의 모든 청원을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인 내 성심으로 가져간다. 많은 청원들이 해결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사랑으로 그들의 십자가를 정중하게 지고 가도록 요청 받을 것이다.”

“오늘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하나 되신 (별판) 성지

자정 기도모임

생명을 위한 시위 행진

2016년 1월 22일



역사에 남을 만한 눈보라가 [약 2피트의 눈] 워싱턴 디시에서 1월 22일 금요일에 일어날 2016년도 생명을 위한 시위 행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낙태를 반대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낙태에서 잃게 된 5천 5백만 이상의 미국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수도에 몰려왔습니다.

생명을 위한 시위 행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의 경우에 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에 의해 인정한 1973년 최고 재판소의 판결의 기념일인 1월 22일 또는 가까운 날짜에 워싱턴 디시에서 낙태에 항의하면서 열리는 연례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궤기 대회입니다. 금년의 시위 행진을 위해 선택된 주제는 **낙태 반대와 여성 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입니다.

태아 목주™는 여러 해 동안 시위 행진에서 전시되어 왔습니다. 성모님께서 1997년 10월 7일, 거룩한 목주의 축일에 낙태의 폐단을 물리치는 무기로서 태아 목주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오하이오주 노스 리지빌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시현자,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발현하셨고 그에게 그 목주를 실현시키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제품이 2001년에 시작되었고 태아 목주는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펼쳐져 왔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태아 목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 이 목주 알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각 '성모송'마다 낙태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한 태아를 구출할 것이다. (성모님, 2001년 7월 2일)

- 태아 목주기도에서 각 '주님의 기도'마다 예수님의 슬픈 성심을 진정시킬 것이고 하느님의 심판의 팔을 만류할 것이다. (예수님, 2001년 8월 3일)
 - 이 목주알(눈물 방울)로 진심으로 끝까지 바쳐진 각 목주기도마다 다 낙태죄에 대한, 곧 이 죄에서 관여하는 각 개인과 그 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형벌을 가볍게 할 것이다. (예수님, 2001년 8월 3일)
- 생명을 위한 시위 행진에서 태아 목주를 전시하기 위해 눈보라에 용감히 맞섰던 그 헌신적인 개인들은 그들 경험을 기술했습니다:

태아 목주 전시

“아아, 여기에 여러분이 다시 와서 반갑습니다. 이 목주를 사고 싶습니다.” ■

“나는 부라질에 살고 이 여행에 올 수 없는 내 친구 대신에 여기 왔어요. 그 여자는 작년에 여기에 왔었고 목주알 안에 태아가 있는 그 목주를 보면 확실히 몇개 좀 사달라고 내게 말했어요.” ■

“나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목주 기도를 바치는 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삽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그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

워싱턴 디시의 루네상스 호텔에 설치한 생명을 위한 시위

행진의 본부에서, 태아 목주 전시 탁자는 언제나 이 독특한 목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니다. 이 목주는 골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들 사이에서 정중하게 물결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은 한 보석상에서 아주 귀중한 보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면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눈물방울 모양의 목주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태아 모양만큼 아주 귀중합니다.

우리는 복되신 어머니께서 사람들을 우리 테이블에 모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방법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일련의 과정입니다. 첫째는 전시 즉, 하얀 리넨 식탁보를 씌운 간단하고 정돈된 테이블과 그 중앙에 놓인 복되신 어머니의 성상입니다. 성상은 꽃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성상의 성모님 발 밑은 태아 목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긋 보고 테이블에 가까이하고 성모님 성상을 주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성상이 복되신 어머니께서 그분의 태내에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주목할 때까지 그것은 그렇게 특이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태아 목주에 끌리지만 그들은 아직 눈물방울 모양의 목주알 안에 소중히 보호된 태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디자인 (design, 설계)과 색을 봅니다: 그들은 빛나는 밝은 청색, 눈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성모송 목주알과 주기도문을 표현하는 목주의 각 10단 사이에 있는 밝은 적색의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목주를 집어 올리고 목주알을 주의 깊게 보기를 권하고, 그러자 감짜기 감탄의 ‘우아!!!!’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보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마치 보석상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작은 태아는 모양, 맑음, 색깔이 완전하고 결함이 없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태아는 각기 다음 성모송 목주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처럼, 각 목주알은 사람들의 손가락들을 통해 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동안 너무 세심하게 검사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되신 어머니께서 설계하신 목주이며 세계 곳곳 어딘가에서 낙태로부터 아기들을 구할 것이고 성모님은 오하이오에서 발현하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태아 목주 전시 탁자에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 수술을 받았거나 낙태를 했던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들을 껴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패티입니다. 그녀는 여러 해 전에 낙태 수술을 받았으나 훨씬 뒤늦게까지 그 여자가 괴로워했던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인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했지만, 무언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티는 그녀가 ‘성령 안에서 삶, Life in the Spirit’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레이첼의 희망 상담소’ (Rachel’s Hope)의 한 강연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강연자는 낙태에 대한 그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패티가 수 십년 동안 그녀의 영혼 안에 깊이 파묻혀있던 고통이 가시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치유에 대한 사례로 패티는 낙태후 여성을 위한 목주기도 목상이 들어 있는 구원의 제목을 붙인 종교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여자는 현재 ‘침묵은 이제 그만’ 인식 운동에 봉사하고 레이첼의 희망 상담소의 낙태후 치유에 대한 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체험에서 감청색(royalblue)의 양털 풀오버(pullover) 스웨터를 입은 11살 소년이 전시 탁자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줍어 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나 그의 눈은 목주에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내버려 두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린 소년에게 관심을 끌고 그가 태아 목주를 잡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네”라고 머리를 끄덕였으며 우리는 목주알 속에 있는 작은 아기들을 보여주면서 목주를 그의 손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머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던 것에 놀라면서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빈번히 숨이 멎을 수 있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를 암전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손에 들린 태아 목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잠시 동안 놀라운 무언가가 그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태아 목주 안에 있는 그 작은 아기를 황홀히 쳐다볼 때, 그 영혼에게 뒤따르는 “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의 증거가 되는 침묵이 흐릅니다. 마치

어디에선가 혼동되고 당황한, 그리고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한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작은 아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를 태어나도록 이 목주로 내 어머니를 위해 바치는 한 번의 성모송이 필요해요.” ■

2016년 1월 22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각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태내의 새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낙태의 합법화로 인해 목숨을 잃을 때 그 나라는 현 시대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서도 영원히 약화된다.”

“너희는 태중의 생명을 파괴할 때 파괴되는 재능과 능력 들을 쉽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낙태가 그들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성소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들의 잠재성을 절대로 실현시키지 못해 왔다.”

“그렇다, 세상은 낙태의 범죄 때문에 영원히 바뀌고 있다. 하느님의 뜻, 곧 태내의 생명은 계속해서 위반되고 있다. 오만한 어떤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도전할 권리가 없다.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은 틀림없이 하느님의 정의(심판)을 일으키게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생명이 수정 단계에서 인식되고 합당하게 존중을 받도록 기도하여라.”

2016년 1월 22일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칼과 방패를 들고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말합니다. 태내에서 싸움이 멈출 때까지 세상에서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 출생 통지

“저의 사촌은 태아 목주기도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의 시도와 많은 치료에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1월에 그에게 목주를 주었고 그녀는 그 다음 해 9월에 **건강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K. R. -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태아 목주

변하는 마음들과
구조되는 생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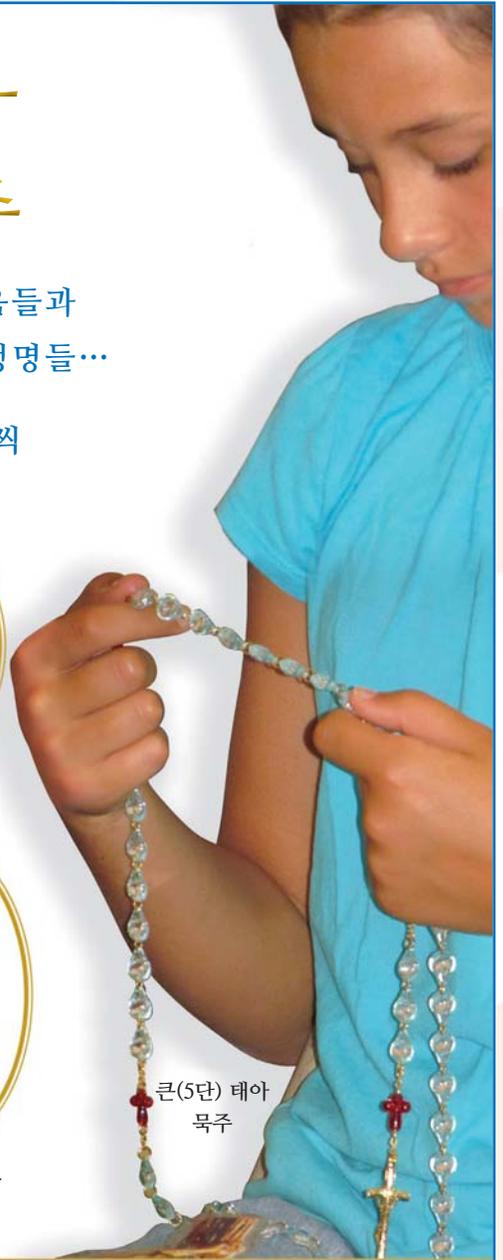
... 한 기도씩
따로 따로.



확대된 목주알의 사진



태아를 위한 짧은 목주



큰(5단) 태아 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전화 440-327-4532이나 온라인 주문.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가격: 5단 목주 - \$29.95, 짧은 목주 - \$14.95 (S&H 추가)

마라나타 샘 물로 치유

저는 57세의 남성입니다. 저의 일생에 잘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고 제 일생에 오직 한 번 독감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해 왔었습니다.

9개월 전에 저의 등 아래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 주일에 여러 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서 두 차례의 의사 진찰과 차도가 없어서 CT scan을 추천했습니다. CT scan이 저의 척장과 간(장)에 종양 (tumor)을 나타냈습니다. **의사는 제가 제4기의 척장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친구 조(Joe)가 마라나타 샘과 성지와 그 샘에서 나오는 성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조는 최근에 성지

순례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마라나타 샘의 성수 한 병을 받았을 때 저는 조의 우정과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매일 그 성수를 제 등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척장암 진단을 받고 화학 요법을 시작했을 때 양종 혈구 수치가 5500이었고 그 후 1000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성수를 사용해 온 후 혈구 수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라나타 샘의 성수의 치유력이 제 건강의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기대합니다.

B.G.

위스콘신주, 선 프래리 (Sun Prairie, Wisconsin)

* 척장암은 미국에서 모든 암의 약 3%와 암 사망의 7%가 된다. **척장암에 대한 어떤 치료법도 없다.** 그것은 오직 퍼지지 전에 발견되면 그리고 그것의 가장 이른 초기 단계에서 수술에 의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때 조절할 수 있다. 미국 암 협회에 따르면, 척장암의 모든 단계를 합친 생존율은 **상대적인 1년 생존율이 20%이고 5년 생존율은 6%이다.**

마라나타 샘

제17편 - 영적 여정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 하느님의 뜻과 일치 (제3부)



제16편을 2004년 2월 5일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 된 성심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각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은 신자들 각자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해야 하고 세계 정세나 미래에 관한 어떤 걱정이나, 미덕 안에 결함들이 각자의 마음과 예수 성심 사이에 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섯째 심방에 기꺼이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모든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신뢰하여 내맡겨야 합니다.

이 논문 시리즈의 제13편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넷째 심방에 관하여 2000년 8월 후반에 예수님께서 하나 된 성심의 심방에 대한 서론이라고 하신 몇몇의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서론은 다섯 심방들의 각각에서

영혼에게 일어나는 것을 요약하는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준비시켰습니다. 다섯째 심방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8월 26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이 서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섯째 심방 (일치)이다. 즉

- 하느님의 뜻과 일치한다;
- 더 이상 두 실체가 아니고 하나다;
- 영혼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조화로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오직 한 의도•뜻 즉,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섯째 심방에 머물러 있는 영혼은 그의 인간의 의지를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신뢰하여 내맡깁니다. 영혼은 거룩한 사랑인 그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매 현 순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예수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머무르거나 지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더 완전히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또다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신뢰에 찬 내맡김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에서 가장 완전한 삶의 비결입니다. 2000년 12월 2일에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라는 제목을 붙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내 아버지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지, 곧 무엇이 내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거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러 왔다.”

“내 어머니께서는 ‘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대답하셨다.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여 사셨기 때문이다. 깃세마니 동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의 모든 세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할 천사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겸손의 깊이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하여 영혼은 가장 큰 시련 중에 그 자신에게는 결코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뜻에만 집중시킬 수 있다.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 어떤 외견상의 이기심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인지!”

예수님께서 영혼이 다섯째 심방에 주재하고 있기 위해 마음의 기질이 갖추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논문 시리즈의 제13편에서 넷째 심방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2000년 8월에 그리고 후에 2001년 1월과 2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서론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 심방들 (2003년에 여섯째 심방의 계시 전)의 “비밀들”을 밝히시는 일련의 메시지들을 받아쓰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계시: 비밀들이 밝혀짐”의 소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소책자에서 다섯째 심방에 주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2001년 1월 31일에 예수님께서서 다음 메시지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신성한 성심의 다섯째이고 가장 깊은 심방을 설명하기 위해 왔다. 이 심방에서 영혼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불타다. 이 사랑에서 영혼은 하느님 뜻에 순응을 너머 큰 조처를 취한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데에는 아직 두가지 뜻 즉,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있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 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내 성심의 가장 선발되고 친밀한 심방인 이 다섯째 심방에서 영혼은 그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 가능한 최고의 정도까지 완전해진 이 사랑 속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게 된다. 내 성심의 이 다섯째 심방에 달하는 영혼은 거의 없다.”

“따라서 내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인 첫째 심방으로 너희를 초청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를 더 큰 정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둘째 심방으로 부르는 것은 사랑이다. 셋째 심방에서 완덕을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넷째 심방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다. 다섯째 심방에서 영혼을 하느님의 뜻과 일치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영혼의 영원을

결정하는 것은 그 영혼이 사랑에 내맡김의 깊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다섯째 심방에 도달하도록 격려하시면서 다음날 2001년 2월 1일에 이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 메시지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달하는 귀중한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여 산다. 하느님께서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산다.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기도를 바쳐라:

“사랑하올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며, 저는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내맡기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이것을 하도록 제게 은총을 보내주소서. 이 은총에 반응하려고 노력할 때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보호와 베푸심의 은혜가 되어 주소서. 제 마음을 지배하소서. 아멘”

그해 후반에 예수님께서서 2001년 10월 4일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서 그분의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사는 영혼의 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다섯째 심방으로 진출한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너희가 완덕을 이해할 때, 너희는 너희가 도달할 목표를 눈앞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심방에 있는 영혼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힘으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제는 더 이상 두 뜻이 아니라 한 뜻만이 있다. 그는 십자가를 오히려 승리처럼 경축할 수 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한 영혼은

모욕이나 부당하게 비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핀다. 그는 교정을 받아들이고 온유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답한다. 그는 뿌루통한 표정을 짓거나 남에게 허물을 씌우거나 남에게 불끈 성을 내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질문과 제안에 열려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의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나누고 모든 면에서 공개적으로 관대하다.”

“그는 그 자신보다 다른 모든 사람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독선이 없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거나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에서 손을 놓는다. 그는 그가 하느님 앞에서의 처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받은 은사나 은총에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지 않고 언제나 깊은 마음의 회개를 추구한다. 이것이 각자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의 상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상태의 거룩함과 이런 종류의 영성에 도달하는 영혼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성심의 다섯째 심방이 영혼에게 이 세상에서의 천국·극락 자체의 느낌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2002년 4월 25일에 주신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다섯째 심방의 분위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각 순간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걸음과 같다. 각 순간마다 다 애정 어린 추억들 즉,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저승에서 대기하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일치하는 것과 같다. 다섯째 심방에서 각 순간마다 다 여기에 들어가는 영혼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발산시킨다. 이런 영혼들은 두려움이나 분노, 원한을 모른다. 그들은 원수가 없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들이 내가 천국으로 승천했을 때 내 왕좌에 올랐던 기쁨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다섯째 심방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활 안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인 평화와 기쁨의 분위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2년 12월 9일** 하나 되신 성심의 성심회의 월요 기도 모임에서 주신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천국이 내리시는 은총을 통하여 너희가 변형될 신성한 사랑의 심방들로 너희를 깊이 끌어들이기를 원한다. 나의 남은 자는 오직 너희가 거룩한 만큼만 강하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여라. 내 형제 자매들아, 나는 신성한 사랑의 **다섯째 심방**에서 너희를 맞이하기를 갈망한다.”

이 특별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는 상태로 변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천국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거룩함의 완성은 영혼이 다섯째 심방에 도달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11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덕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영혼은 거룩한 신뢰에 깊이 내맡길 수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할 수록, 더욱더 쉽게 그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혼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이 메시지의 견해를 반영한 도표에서 영혼이 성심의 **넷째 심방** (하느님 뜻에 순응, 하느님 뜻을 받아들임)에서 성심의 **다섯째 심방** (일치인 하느님 뜻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진행을 보여줍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거룩함의 완성이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는 **2002년 4월 25일** 메시지에서 또한 기술하는

낙원/천국의 분위기, 곧 영혼이 하느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논문 시리즈의 제 18편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대한 해설을 계속할 때, 다섯째 심방에 있는 영혼이 그의 영성이 성인들의 더 높은 상태를 대표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는 지 그리고 이것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으로 이끌 것인 지에 대해 초점을 둘 것입니다. ■

(다음 제18편에 계속)

